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사업 추진 '탄력'

올해 한문연·전북문화관광재단 공모서 기획사업 8건 선정... 총 3억3918만원 국고 보조금 확보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2023년 국고 지원사업 공모 결과, 8건의 기획사업이 심사를 통과해 총 3억3918만 원의 국고 보조금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먼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공모한 국고 지원사업의 경우 공연 부문에서 투프탑 시리즈 No.1 '스탠딩 B구역'이 3200만 원, 전시 부문에서는 '운동주가 사랑한 한글'을 주제로 한 기획전시가 3250만 원을 각각 지원 받게 됐다.

'스탠딩 B-구역'은 전당의 유희공간인 전시장 옥상을 B구역으로 설정, 다양한 공간 연출과 다채로운 프로그램 구성으로 야외 공간에서 자유롭게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한 스토리텔링형 콘서트이며, '운동주가 사랑한 한글'전은 '한글'과 민족시인 '운동주'를 소재로, 한글단어에 예술적 창의성을 결합해 한글의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조명하는 기획전시다.

이어 예술교육 부문에서는 4차 산업 신기술(XR)을 예술 창작 도구로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함양시켜, 미래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의 '아트쇼 속 XR 세계소리여행'이 8000만 원을, 중·고등학생들이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관람하고 작품과 연계된 감상 교육에 참여해 예술적 감성과 정서를 함양하는 '아트쇼 탐험대'가 6642만 원의 보조금을 각각 지원 받는다.

또한, 중장년층이 참여해 전문가로부터 발레를 배우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자서전 쓰기를 통해, 세월의 흐름 속에 잊고 살았던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발레로 쓰는 자서전'이 2426만 원, 예술작품을 감상하고 창작활동으로까지 이어지는 6주 과정의 일반인 대상 미술프로그램 '어른들의 문화놀이'다. 시작은 1700만 원을 지원 받는다.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이 공모한 국고 지원사업에서도 전당의 메인 테마인 '소리'를 주제로 음악놀이, 연극놀이, 신체놀이, 상상놀이 등 다양한 놀이를 통해 유아들이 우리의 전통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획한 '소리타? 놀이터!'가 6000만 원을, 전당의 차별화된 통합예술 교육프로그램인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이 2700만 원을 지원 받는 등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2023년 기획사업과 관련 확보한 국고 보조금은 총 3억3918만 원에 달한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관계자는 "올해 전당이 야심차게 준비한 기획사업 8건이 국고 지원사업 심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며 "도민들이 만족할 만한 프로그램이 되도록 알차고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내에 위치한 향토박물관은 지난 21일부터 7월 21일까지 3개월 간 남원의 불교 미술 유적 사진전을 열고 있다.

'남원의 불교 미술' 유적 사진전 개최

향토박물관서 7월 21일까지 석탑·승탑 등 소개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내에 위치한 향토박물관은 지난 21일부터 7월 21일까지 3개월 간 남원의 불교 미술 유적 사진전을 열고 있다.

불교 미술 유적 사진 전시는 남원 지역에 산재해 있는 불교 유적 중 석탑을 중심 대상으로 20여점의 사진 자료를 선보인다. 남원은 지붕없는 박물관이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유물 유적이 분포한 문화 예술의 땅이다. 특히 불교 유적에 있어서도 각 시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불상, 석불상, 불교미술품 등이 산재한다.

이번 사진전은, 2015년도 불상 지정문화재 사진 전시, 2021년 불교 유적 석불상 사진 전시에 이은 세 번째 기획전으로, 당시에 소개되지 못했던 석탑, 승탑들을 전시에서 소개하고자 했다.

특히, 통일신라 후기 구산선문 최초의 가람인 실상사에는 다수의 문화재가 집중되어 있는데, 국보인 백장암 3층석탑을 비롯, 실상사 보광전

앞에 위치한 석등, 2기의 삼층석탑, 수철화상 능가보월탑, 수철화상능가보월탑비, 증각대사 응료탑, 증각대사응료탑비, 실상사 승탑, 편운 화상 부도 등의 사진을 비롯하여, 용담사 7층 석탑, 만복사지 5층석탑 등 남원의 대표적 석탑의 사진 등을 전시했다.

이 석탑들은 고대국가시대에 조성되어 현재에까지 우리 곁에 보존되어 내려온 소중한 문화 유산들이자, 예술성이 뛰어난 작품들로서 남원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불교미술에 대하여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경석 남원향토박물관 지방학예연구사는 이번 사진 전시회가 쉽게 찾아가기 어려운 남원 각처에 산재한 불교 유적인 석탑, 승탑을 통해 불교문화를 좀 더 가까이 접해보고 이해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전하고 있다.

/남원=김기투 기자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 전야제 축하 콘서트 개최

26일 전주교육대 황학당서 '나래코리아&전주교육대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 콘서트'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공모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전주 영화의 거리 일대에서 열린다.

27일 개막에 앞서 26일 오후 7시 전주교육대학교 황학당에서 송미령 예원예술대학교 융합조형디자인학과 교수의 사회로 '나래코리아&전주교육대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 콘서트'가 열린다.

이 공연은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을

축하해주는 전야제의 성격을 띤다.

이번 영화제 전야제 축하 콘서트 1부는 박진철 지휘자가 이끄는 전주소년소녀합창단, 전주리브체 합창단, 호남시나위 국악양상블, 해금 이동훈, 강소연 피아니스트가 담당한다.

2부에서는 소프라노 송년영, 바리톤 석상근이 나래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반주에 맞춰 전주의 밤을 화려하게 물들이며, 90년

대 초반 인기를 끌었던 가수 이상우가 전주국제영화제의 전야 축하공연의 파날레를 장식한다.

한편,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는 지금까지 국제경쟁에 83개국 604편이 출품되고, 한국장편경쟁 111편을 포함 1299편 등이 출품되는 등 세계적인 독립영화제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국립익산박물관 어린이박물관 평일에 놀러 오세요"

어린이 동반 개인 관람객 대상 비치볼 증정 '평일 관람 이벤트' 진행

국립익산박물관(관장 최홍선)은 오는 4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어린이박물관 평일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어린이를 동반한 개인 관람객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평일 관람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한 것으로, 평일 어린이박물관을 방문해 전시를 관람한 개인 관람객에 비치볼을 증정할 예정이다.

관람은 어린이박물관 특성상 예약제로 운영

되며, 회차당 관람인원이 30명으로 한정돼 있다.

어린이박물관 관계자는 "주말은 관람객이 많기 때문에 비교적 여유로운 평일에 전시를 여유롭고 알차게 즐길 수 있도록 평일 관람을 권장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어린이박물관 누리집(<https://iksan.museum.go.kr/ismchild/>)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한눈에 보는 전주교육대학교 100년사

개교 100주년 기념 특별전시회' 6월 30일까지 개최

전주교육대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 특별전시회가 오는 6월 30일까지 교내 황학당 지하 전시실에서 열린다.

이에 따르면 특별전시회는 기록으로 보는 전주교육대학교 100년사와 개교 100주년 기념 동문 작품전을 함께 운영한다.

대학의 역사를 옮겨놓은 공간은 △기증 기록물 전시 △전주교육대학교 100년 히스토리 △테마별 대학 사진 △전주교육대학교 상징과 역대 총장 △한눈에 보는 100년사로 구성돼 있다.

또 동문 작품전은 서예, 수채화, 문인화, 조각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적 재능이 뛰어난 동문 작품 총 54점을 모은 공간으로 관람객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전할 예정이다.

박병춘 총장은 "전시회에 마련된 오랜 기록들은 우리 대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증명하고, 과거와 현재의 우리를 이어주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지금은 볼 수 없는 학교의 옛 모습을 엿보며 소중한 추억을 함께 나눠 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금연캠페인